

적정 사육밀도를 지키자



강 화 순 양돈마케팅이사
(주)에그리브랜드 푸리나코리아

2007년부터 축산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축의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해야만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어야만 한다.

축산업 등록제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걱정때문에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복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적정 사육밀도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돼지의 건강과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는 한편 친환경 축산을 위해 적정 사육밀도를 지켜 만성 소모성 질환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돼지 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돼지사육두수와 밀사의 피해 및 돼지 적정 사육밀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월 1일부터 밀사하면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축산업 등록제에 가입된 농가들은 올 1월 1일부터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가축을 밀집 사육하지 않아야지 이를 어기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04년 3월 축산업등록제 시행과 관련 고시를 통해 가축사육업을 하는 등록농가는 가축사육 시설의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가축의 숫자이상으로 밀집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하되 3년여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농림부가 고시한 돼지의 성장단계별 두당 사육시설 소요면적은 다음과 같다.

▲ 돼지는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이 웅돈 9.7㎡, 번식돈에서 임신돈 3.9㎡, 종부대기돈 1.4㎡(스틀), 3.1㎡(군사), 후보돈 3.1㎡(군사)이며, 비육돈에서 자돈 0.3㎡, 육성돈 0.6㎡, 비육돈 0.9㎡. 경영 형태 별로는 일관경영 0.89㎡, 번식경영(1) 2.5㎡, 번식경영(2) 0.9㎡, 비육경영(1) 0.7㎡, 비육경영(2) 0.87㎡로 일관 경영은 번식 - 분만 - 자돈 - 비육을 말하고, 번식경영(1)은 번식-분만, 번식경영(2) 번식 - 분만 - 자돈, 비육 경영(1) 자돈 - 비육, 비육경영(2) 비육만을 말한다.

돼지 사육시설 소요면적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m²/두)

| 구분 | 용돈 | 번식돈 | | | | 비육 | | |
|---------|-----|-----|-----|--------------------|---------|-----|-----|-----|
| | | 입신돈 | 분만돈 | 종부대기돈 | 후보돈 | 지돈 | 육성돈 | 비육돈 |
| 두당 소요면적 | 9.7 | 1.4 | 3.9 | 1.4(스틀) 3.0(군사) | 3.1(군사) | 0.3 | 0.6 | 0.9 |

• 포유중인 자돈은 사육두수에 포함하지 않음.

2. 경영형태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m²/두)

| 일관경영 | 번식경영 | 번식경영 | 비육경영 | 비육경영 |
|------|------|------|------|------|
| 0.89 | 2.51 | 0.93 | 0.72 | 0.87 |

3. 성장단계별 또는 경영형태별 기준 등 택일하여 적용

1. 밀사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

밀사가 되면 개체별 체중변이가 커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한 개체의 성장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약한 개체는 사료나 물 섭취량이 충분치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성장이 부진하게 된다. 과밀사육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성장률 저하 - 두당 고정비 증가
- 사료효율 저하 - 두당 사료비 증가
- 출하체중 감소 - 판매 수익 감소
- 출하체중 변이 - 판매 수익 감소

2. 적정 사육밀도와 돈방당 사육두수는?

적정 사육 밀도에 대한 기준은 앞으로 정부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 내용은 외국에서 권장되고 있는 사육밀도의 한 예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1) 사육밀도 : 두당 적정 사육면적은 체중, 바닥형태(평사, 슬랫, 깔짚 또는 슬러리)와 환경온도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새로 돈사를 지을 때를 제외하면 돈사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돈방당 사육두수를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사육밀도를 조절하게 된다.

두당 사육면적이 늘어나면 성장률, 사료섭취량 및 사료효율 등이 개선되지만 이 이상으로 사육면적이 증가하면 성장률은 오히려 감소한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한 비육돈(100kg)의 적정 최대 사육면적은 0.85m²이다. 사육면적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돈사시설에 따른 비용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단위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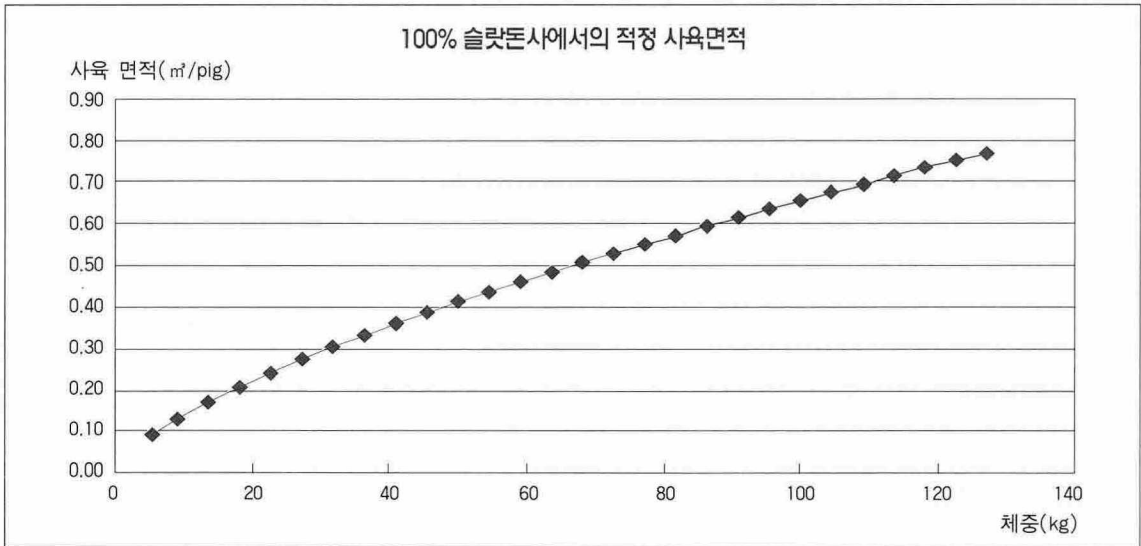


(m²)당 사육두수도 함께 평가토록 한다.

적정 사육밀도 : 체중 kg ^{0.67} × 0.03

위 식은 일반적으로 돼지들의 휴식공간 면적을 기준한 것이므로 완전 슬랏돈사에서는 적용이 가능하나 부분 슬랏이나 깔짚 돈사에 적용시에는 배변공간에 필요한 면적이 추가되어야 한다.

아래 그림은 위 식에 근거하여 산출한 체중별 적정 사육면적이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육조건을 고려하여 사육두수를 조절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하절기나 호흡기 질병에 감염된 경우 사육 공간을 더 넓혀주어야 하며 반대로 동절기에는 하절기보다 더 적은 면적을 제공토록 한다.

2) 돈방당 사육 두수 : 돼지는 30두 이상 구분해내지 못한다. 따라서 이 정도의 규모에서는 서열이 낮은 개체가 높은 개체와 경쟁하지 못한다. 따라서 서열이 낮은 개체가 사료와 물을 충분히 섭취토록 하려면 이 보다 적은 규모(15~20두)라야 한다.

돈군 크기가 너무 크면 서열이 낮은 개체는 스트레스를 받아 성장이 저하되고 사료효율도 떨어지며 위궤양, 꼬리/다리/귀물기 현상을 나타내고 면역능력도 떨어져 질병감염에 쉽게 노출 된다. 관리상태 및 사육밀도가 올바르게 관리될 때 돼지의 성장은 극대화된다. 그러나 사육두수가 증가하면 관리상태가 부실해지고 이에 따라 균일성이 떨어지게 된다.

밀사에 의한 피해는 최근에는 스트레스에 매우 약해져 만성소모성질환으로 발전하여 많은 폐사로도 이어지고 있다. 밀사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한다.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하여 생산성 높은 양돈업이 되도록 하자. **양돈**